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



| 문성윤 순천SOS어린이마을 원장

얼마 전 일간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지자체들 ‘출산 장려’ 아이디어 백태”경상북도의 어느 동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 5년이 되었다는 소식 등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할 예비 부모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고 부모들 또한 자녀를 양육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세상!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가?

사회 양극화로 인한 양육환경 격차 극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실은 어떠한가.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류에 해당하는 제도적 서비스와 선별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는 제도적이며 보편적인 서비스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잔여적이며 선별적인 서비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가족체계의 해체, 열악한 아동양육 여건 등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그나마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할 아동들은 사회의 양극화에 의해 양육환경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혹자는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를 빗대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재앙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데는 평



관수명의 연장에 의한 노인의 증가도 있지만 그보다 급속도로 감소하는 아동인구는 지속적인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1970년에는 출생아동수 100만 명에 함께출산을 4.53명이었는데 2004년에는 출생아동수 47만 명에 함께출산을 1.17명으로 급감하였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

경찰청이 200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이후 매년 4,000 여명의 미아가 발생한다. 이중 200명 정도의 아이들은 장기미아가 되고 있고 매년 14세 미만 어린이중 1,000여 명이 각종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매년 피학대아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보호아동 19,000여명, 위탁가정 아동 16,000여명 등이 각종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 현재 1,700여명의 어린이가 국내 입양되고 2,300여명의 어린이가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이런 위기의 어린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제도적 아동복지의 방법과 처우는 아직도 요원한가?

아동복지의 다양한 개입필요

종합적 서비스의 실천적 개입과 사례관리적 접근 필요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아동복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그 시작과 발달과정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의 그 특성상 보호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교육, 자립 등 다양한 개입을 필요로 하므로 종합적 서비스의 실천적 개입과 사례관리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의 미래의 세상을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꿈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종 경제논리와 힘의 논리, 그

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배했던 유교적 경로효친사상 등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권력이 없는 아동복지를 후순위로 늘 밀어내는 구실이 되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아동복지의 새로운 대안과 관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복지의 새로운 대안

■ 아동복지 대상의 재확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만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주에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 대상자가 일반아동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요보호 아동 중심의 조향이 많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의 문화와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는 아동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상 강화 요구

아동 청소년은 아동복지의 주체이면서도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객체적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관계자나 청소년들은 각종 사회참여를 통해 아동복지의 주체로 아동청소년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요즘 청소년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과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점차 그 범위와 역할을 확대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아동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동복지 관계자들은 정책수립과 실천에서 아동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부모의 자녀양육 기술 교육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자녀양육 기술 부족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와 충돌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아발생과 각종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기술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가정을 너무 쉽게 포기하여 입양이나 시설보호, 위탁가정보호 대상자로 유입되는 아동들을 줄이기 위해서도 부모교육은 필요하다. 실제 미국의 일부지역에서는 결혼 전에 예비부모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이혼율을 감소시키고 사회복지비용을 줄인 사례가 있음을 주지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학교사회복지 확대

18세 미만의 아동 중 60%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고 사회를 배우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아동들이 학교부적응, 왕따, 방임 등에 의해 가출, 학교폭력, 약물중독 등 청소년 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학교사회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현재의 세대는 이 세상을 다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는 어른들도 행복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상기하며 나라와 지역사회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 어린이를 주목하는 지도자를 우리도 주목하자. 그곳에 행복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